

연예뉴스 HOT 5



'도시어부'

채널A '도시어부' 시즌3, 5월 첫 방송

채널A 대표 프로그램 '도시어부' 시즌3이 5월 방송한다. '도시어부' 제작진은 1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 유공 표창을 받으며 시즌 3 방송 소식을 알렸다. 해양수산부는 낚시를 주제로 다양한 어종과 지역 대표 수산물에 홍보한 공로를 인정해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시어부'는 리얼 낚시 버라이어티로, 2017년 9월 첫 방송 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금전 피해' 박수홍, 그 와중에 1000만원 기부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30년간 급전적 피해를 입어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까지 한 아동복지시설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기도 동두천 애신아동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이 센터의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수홍은 2001년 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과 인연을 맺고 20년 동안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평소에도 가구 교체, 건물 공사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

배우 하연주, SNS 통해 6월 결혼 알려



하연주

연기자 하연주(34)가 6월 결혼한다. 하연주는 1일 SNS를 통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 다가오는 6월에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예비신랑과 지난해부터 교제해왔다면서 그의 나이와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연주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혼 후에도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며 살겠다"고도 썼다. 2008년 드라마 '그분이 오신다'로 데뷔한 하연주는 '연애조작단:시라노', '미스코리아' 등에 출연했다.

에이핑크 박초롱, 허위사실 협박 친구 고소



박초롱

걸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친구 김모씨를 고소했다.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강요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박초롱에게 연락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폭행 사건과 함께 사생활 관련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연에게 은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배우 김영옥, '6시 내고향' 목소리 출연



김영옥

배우 김영옥이 KBS 1TV '6시 내고향'에 목소리로 출연한다. 1일 KBS에 따르면 김영옥은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 '청산에 살리라'에 참여해 매주 목요일 시청자들과 목소리로 만난다. 김영옥의 진솔한 목소리와 함께 이날 방송부터 새로워진 코너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충무로를 향하는 아이들의 무한도전



15일 개봉작 '어른들은 몰라요'의 하니(안희연)를 비롯해 '더 박스'의 찬열, '최면'의 조현(원쪽부터) 등 아이돌 스타들이 스크린 주역 자리를 노리고 있다.

사진제공 | 리틀빅픽처스·씨네필름·스마일엔티

하니·찬열·조현 '스크린돌' 변신

엑소 찬열 '더 박스' 주인공으로 열린 EXID 하니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 베리굿 조현·소시 서현도 주연 발탁

아이돌 그룹 출신이거나 현재 멤버로 활동 중인 스타들이 잇따라 스크린으로 향하고 있다. 우뚝한 주연으로서 흥행을 노리는 이들이 연기자로 안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 위에 당당히 나서고 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 최근 영화 '더 박스'의 주연으로 관객을 만난 데 이어 EXID의 하니가 본명인 '안희연'의

이름으로 스크린 데뷔한다. 15일 공개하는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를 무대 삼은 그는 전작 '박희영'으로 호평 받은 이환 감독과 손잡았다. 집에서 뛰쳐나온 채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임신부 친구를 돕는 10대로, 청소년의 현실을 표현한다.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드라마 '엑스엑스' 등에 출연해온 안희연이 18세 가출소녀 역의 파격적인 이미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이돌 출신도 영화의 주연으로 나선다. 최근 공포영화 '최면'의 주연으로 활약한 그룹 베리굿의 멤버 조현에 뒤이어 소녀시대 출신 서현이 새로운 영화를 이끈다.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럴센스'를 통해 주연으로서 첫 활약을 예고했다.

이들은 앞서 그룹 엑소의 디오(도경수)와 제국의아이들 출신 임시완, 소녀시대의 임은아와 최수영 등이 건네는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 가운데 디오와 임시완은 영화를 홀로 온전히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은 조연급에 머물거나 전문 연기자를 내세운 주연의 주변 인물로 기능하는 데 그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단 스크린행을 선택한 아이돌 출신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가수 활동으로 쌓

아온 인지도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 아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연예활동 경험을 통해 또래 연기자들에 비해 비교적 연기 분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일 충무로의 한 관계자는 "눈에 띄는 20대 연기자들이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 대중적 인기를 모아온 아이돌 출신들의 활약을 폄하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연기력과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새로운 연기자를 발굴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행성 '겉성'으로 비밀 캔다...C급영화 '인천스텔라' 화제

미술교사인 백승기 감독의 패러디물 홀로 딸 키우는 ASA 탐사대원 모험담

자칭 'C급영화'를 표방하는 '인천스텔라'가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초저예산'으로 기발한 상상력을 담아내 최근 당당히 극장에 간판을 내걸며 관객 시선에 들었다.

'인천스텔라'는 현지 고교 미술교사인 백승기 감독이 직접 모금한 소상공인 협찬금에 인천영상위원회 지원금 5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제작비로 만든 영화. 홀로 딸 키우는 ASA(아사·아시아항공우주국) 탐사대원이 동료들과 함께 과거 속에서 날아온 설계도를 토대로 만든 비밀우주선 인천스텔라에 올라 펼쳐는 모험담이다. 행성 '겉성'으로 날아가며 과거의 비밀을 풀어낸다.

영화는 제목과 굵은 열개가 가리키는 바, '인천스텔라'의 줄기 속에 '그래비티',



6000만원의 '초저예산' 영화 '인천스텔라'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컨택트', 한국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등 잘 알려진 작품 속 다양한 장면과 설정을 패러디했다. 그 위에 번뜩이는 재치와 감각을 담아냈다. 우주선 인천스텔라는 백 감독이 지인에게 빌린 1980년대산 스텔라 자동차이고, 인천 월미도의 전망대는 극중 ASA 본부가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인근 아산은 행성 '겉성'으로, 자동차 정비소는 우주선 비밀기지로 변신한다. 영화는 이처럼 다소 황당하지만 기발함의 온갖 패러디

로 웃음을 자아낸다. 동시에 가족애라는 진지한 메시지도 던진다.

실제로 관객은 "황당하고 뻔한 상황을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뚫어낸 감독의 유머와 당당함이 마음을 사로잡았다"(re***), "백승기 감독의 수작, 눈물나는 영화"(wo***), "우주로맨스활극급에 유쾌하다!"(je***), "우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3월 25일 개봉해 1일 현재 전국 24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지만 관객의 평가만큼은 여느 상업영화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같은 찬사는 이미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돼 단 45초 만에 매진을 기록한 데서도 확인됐다. 이 영화제 장편 배급지원상을 받았고, 춘천영화제에서는 한국독립SF 경쟁부문 춘천의 시선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앞서 백승기 감독은 2012년 '수호구'로 데뷔해 2016년 '사발, 늑:인류의 시작', 2019년 '오늘도 평화로운'을 모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선보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안연홍 하도권 김동규

안연홍·하도권·김동규 '펜트하우스2' 신스틸러

2일 종영하는 SBS '펜트하우스2'가 막바지까지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며 유진·김소연·이지아 등 주연뿐 아니라 적은 분량에도 존재감을 드러낸 '신 스텔라'들을 화제의 중심에 올려 놓고 있다. 김소연의 딸 최예빈의 가정교사 역 안연홍, 청아예고 음악교사 하도권, 엄기준의 비서 김동규이다. 이들은 최근 29.2%(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시즌1의 최고치(28.8%)를 넘기는 데 큰 힘을 안긴 또 다른 주역들이다.

안연홍은 정체가 의심스러운 진보훈 선생을 연기하며 3년의 공백을 말끔히 씻어냈다. 이지아의 조력자 박은석(로건리의)의 지시를 받는 '스파이'였다가 정체가 이어 최예빈을 향한 이상 집착까지 보여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내가 널 지켜줄게"라며 눈을 번뜩이는 장면이 압권이었다. 6월 막을 올리는 시즌3의 주요 악역으로까지 잠재지면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시즌1에 이어 출연한 하도권과 김동규는 '펜트하우스'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며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도권은 권력자들에 기생해 청아예고 예술부장 지위까지 오른 음악교사 역할로 코믹한 모습을 선보였다. SBS '스트리브' 등에서 드러낸 카리스마와는 반대의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성악 장면도 대역 없이 소화했다. 차분한 입담까지 갖춰 최근 MBC '심야괴담회' '구해줘홍', SBS '런닝맨' 등 예능프로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했다.

엄기준에게 매번 연어맞는 '조 비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동규는 2018년 데뷔한 신인이다. 단역에 머물다 처음 조연을 맡은 '펜트하우스'로 이름을 알렸다. 엄기준을 끝내 배신할 것 같다는 각종 추측 속에 방송인 유병재와 닮은 외모로도 온라인상 화제가 됐다. 이를 발판삼아 유병재의 유튜브 채널 '유병재'와 tvN 예능프로그램 '운앤오프' 등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BTS, 英 최고 권위 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 이어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에 후보로 올라 세계 양대 음악시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과시했다.

방탄소년단은 1일(이하 한국시간) '다이너마이트'로 영국 브릿 어워즈(Brit Awards)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다. 한국가수로는 처음이다. 록밴드 푸 파이터스, 3인조 자매 밴드 하임, 합창 듀오 런 더 주얼스, 펑크 밴드 폰테인 D.C 등과 경쟁을 벌인다. 시상식은 5월12일 런던 오후(02) 아레나에서 열린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뮤직 어워즈에 이어 브릿 어워즈까지 후보에 오르는 진 기록을 쓰게 됐다. 브릿 어워즈는 1977년부터 영국음악산업협회가 주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사진은 영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2010 브릿 어워즈'에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사진제공 | 브릿 어워즈

해운 상으로, 영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대중음악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솔로가수 에게만 시상하고 그룹 부문을 없애 방탄소년단 팬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BBC는 방탄소년단의 팬들 반응을 인 용해 "브릿 어워즈가 방탄소년단의 상

푸 파이터스·하임 등 경쟁 내달 12일 런던서 시상식

을 빼앗았다. 방탄소년단을 막는 게 그렇게 절박한가?"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한국가수 최장기 차트 인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빌보드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전 주 대비 8계단 올라 26위를 기록, 31주 연속 차트를 지켰다. 이는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쓴 한국가수 최초의 기록과 같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21일 선보인 '다이너마이트'로 한국가수 최초의 '핫 100' 정상과 함께 통산 3차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그래미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인 이후 2주 연속 역주행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